

## 저소득 가정의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른 영유아 발달 및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김정화\*\* 송미령\*\*\*

Effect of 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Child Development and  
Parenting Stress from Low Income Families

Kim, Jeong Wha Song, Mi Ryoung

본 연구는 저소득 가정의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과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와 그 부모이며 현재 조기개입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와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 그리고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 영유아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K-ASQ 검사를 실시하였고,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참여유무에 따라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가 참여하지 않은 영아보다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등에서 발달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 가정의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부모를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 뿐 아니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함께 개입하고 지원해야 하며,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및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주제어 : 영유아, 저소득 가정, 조기개입, 영유아발달, 양육스트레스, 드림스타트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 제1저자(교신저자): 강동어린이회관 관장(E-mail : jeongwhak@hanmail.net)

\*\*\* 제2저자: 한국보육진흥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팀원

## I. 서론

빈곤가정에서 출생한 아동은 성장하여 성인이 되더라도 빈곤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ass, Dinan, & Aratani, 2009). 이러한 낮은 빈곤이탈 확률은 빈곤의 되물림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따라서 빈곤의 세습이 차단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빈곤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협하게 되어 그 가정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어렵게 한다. 또한 빈곤 가정의 부모는 불안정한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조용남, 김정화, 정선영, 송미령, 조유리, 2012).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의존도가 높고 가정환경의 영향이 큰 영유아기 아동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다른 발달단계 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신체, 정서, 인지 발달 등 모든 영역의 발달에서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미숙, 조애저, 배화옥, 김효진, 홍미, 2007; Bradley & Corwyn, 2002).

또한 저소득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안전하지 못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어린 자녀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대부분 저소득 가정의 불결한 위생환경은 전염성 질환을 초래하여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자녀의 질병발생과 건강악화를 야기한다(권은선, 구인회, 2010). 또한 질 낮은 섭식문제는 영양결핍과 영양 불균형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평균 신장 및 평균 체중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역시 높다. 그러나 반대로 불규칙한 식사나 저비용 고열량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로 인해 아동의 비만도(BMI)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Ziol-Guest, Duncan, & Kali, 2009).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을 비교해 보더라도 일반아동에 비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병원진료 및 입원의 비율이 높고 선천적인 발달지연과 알레르기 발생빈도가 더 높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국가에서 빈곤이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Heaton, Forste, Hoffmann, & Flake, 2005) 이렇듯 가정의 경제적 빈곤은 안전, 위생, 영양 측면에서 건강하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한다.

가정의 경제적 빈곤은 아동의 인지와 언어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 가정은 아동의 학습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 및 정서적 환경 그리고 학업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학습매체와 교육적 환경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Yeung, Linver, & Brook-Gunn, 2002). 교육비의 부족, 학습을 촉진하는 자극의 부족 그리고 부모의 학습지원의 제한은 아동의 인지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그리고 인지적 어려움은 언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시점부터 저소득 가정 아동의 문해 능력은 중류가정 아동에 비해 뒤쳐지기 시작하고(Snow, Burns, & Griffin, 1998)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읽기와 쓰기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이은혜, 이정림, 김명순, 전해정, 2010). 빈곤을 경험해 본 아동은 다른 계층의 아동보다 학업성취가 더 낮으며(김광혁, 2006; 임세희, 2007) 낮은 학업성취도는 다시 학교적응을 어렵게 한다. 가정의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가족관계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 역시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김광혁, 2006; 윤현선, 2006).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약화되고 이로 인해 이들 가족 내 아동의 발달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어린 영유아의 경우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족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기타 다른 사회적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가족의 특성은 이러한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홍순혜, 이숙영, 2009; 장혜림, 2012). 영유아시기부터 부모로부터 필요한 양육이나 보호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많은 사회적 기술 습득의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며 산만하고 친구들과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또한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외로움이나 우울을 경험하게도 된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적인 사회성이나 관계 형성 능력 부족, 가족 자원의 부족은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양질의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때때로 아동의 방임을 낳는다. 부모의 양육 부재로 인해 아동이 가족이나 사회적인 방치상태에서 성장하게 되면 아동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비행을 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Esping-Andersen, 2002). 가정의 경제적 박탈은 아동의 신체적, 사회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박탈을 경험하게 하고(Korenman, Miller, & Sjaastad, 1995; Hill & Sandfort, 1995)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우울감과 외현화 문제행동, 부적응 등은 아동의 성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오경자, 문경주 2006).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동 뿐 아니라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해 저소득 가정의 부모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생활의 불안정과 부모의 무기력 등을 가져오고 부모의 심리적 변화를 야기하여 가정의 정서적 기능, 교육적 지원 등 양육행동에 부정적 결과를 미치게 된다(김광혁, 2006; Eamon, 2000). 부모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가족관계를 악화시키며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등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가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강압적이게 된다(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재인용; Felner, Brand, Buboio, Adan, Mulhall, & Evans, 1995; Mcloyd, 1998). 그런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자신의 삶의 불만족으로 이어져 가족관계의 불안정을 더욱 더 야기하게 된다(신숙재, 정문자, 1998; 안지영, 2001; 최형성, 2002; Cutrona & Troutman, 1986; 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Gross & Tucker, 1994). 다시 말해 가정의 빈곤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자인 부모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정적이 되고 때로는 비일관적이며 또한 혹독하기 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양육행동은 결과적으로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재인용; Felner, Brand, Buboio, Adan, Mulhall, & Evans, 1995; Mcloyd, 1998).

많은 선행연구들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Reitz, Dekovic, Meijer, & Engels, 2006).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빈곤은 가정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관계없이 요구되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저소득 가정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Yeung, Linver, & Brook-Gunn, 2002).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가정 부모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 부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클수록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홍순혜, 이숙영, 2009), 거부적인 양육태도로 나타나므로(이영훈, 이종인, 2008) 부모 자신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부모의 빈곤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인해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시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부모 자신의 삶의 만족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위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김영주, 송연숙, 2007; 이영환, 오미연, 200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는 우선 부모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부모가 겪는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많고 양육행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적절한 양육지식은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양육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양미선, 김양은, 2012). 또한 부모 역시도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와 기술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도현심, 이선희, 오유리, 김경미, 최규리, 강나현, 2009).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돌봄 지원과 같은 양육보조 그리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는 물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김수경, 도금혜, 2013).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정 부모의 경우 경제적 지원 등 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지원과 함께 부모를 위한 직접적인 교육 또는 양육기술을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서 많은 연구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영향력은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영유아기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아동의 부족한 발달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 다년간에 걸쳐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장·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06).

대표적인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미국의 Head Start와 영국의 Sure Start, 그리고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가 있다. 미국의 Head Start는 빈곤이 아동과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에게 교육, 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Sure Start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회에 기반을 둔 초기 중재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 아동 보육, 조기교육, 그리고 보건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Schweinhart, Montie, Xiang, Barnett, Belfield, & Nores, 2005). Head Start 프로그램의 효과는 The Head Start Impact Study(Puma, Bell, Cook, & Heid, 2010)의 결과에서 보여주듯 Head Start 프로그램의 경험이 있는 아동이 없는 아동에 비해 인지발달과 사회정서발달이 높게 나타나고, 신체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들도 Head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National Evaluation of Sure Start(NESS)의 2010년 보고서를 보면 Sure Start 프로그램의 효과로 비만 아동의 체질량 지수 감소 등 신체건강 증진, 모의 안녕감과 가족 기능의 긍정적 영향으로 가족해체 비율 저하, 삶의 만족도 상승 등의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우리나라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따라 200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의 양육환경이 취약하여 아동의 전인적 성장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과 가족에게 집중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영유아기 부터 집중 투자하여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능동적 아동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의 발달 영역별로 목표를 계획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한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을 영아와 유아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발달의 영역별 서비스 뿐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양육환경을 포함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분야 및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 및 건강 영역의 서비스는 건강검진 및 예방 분야로 신체검진,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검진, 건강교육, 영양교육, 비만클리닉 등 건강클리닉이 포함되어있다. 인지 및 언어영역의 서비스는 기초학습 분야로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 배양, 독서지도, 경제교육 등이 있다. 정서 및 행동 영역의 서비스는 크게 사회정서, 심리행동, 보호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서비스는 사회성 발달, 정서발달, 학대 및 폭력예방, 아동권리교육, 다문화관련교육, 소방 및 안전관련 등이다.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를 위해 돌봄 기관 연계 및 야간보호 및 교육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부모 영역은 부모교육과 부모지원 분야가 있고 부모와 자녀관계 상담 및 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 자조모임, 부모취업 지원, 지활 상담, 가계경제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보건복지부, 2013).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 이외에도 아동의 문제와 욕구를 사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달 영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기개입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 사업이 저소득 가정 아동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 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어린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영유

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점점 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한 나라들의 경우 장단기적인 연구를 통해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발달에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연구도 주로 취학연령을 중심으로 외형적 신체발달, 학업성취도, 문해 능력, 학교 적응, 안녕감 등을 주로 다루고 있어 취학 전 영유아의 중요한 발달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영유아의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목적으로 연구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영유아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참여 결과가 영유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지원되는 드림스타트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실제 영유아 발달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부모에게 지원되는 양육지원 서비스 또한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지식과 방법을 전달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되는 드림스타트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라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볼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이 영유아와 부모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차단되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을 증진시키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부모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자녀 양육기술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른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발달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른 저소득 가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2년에 실시한 드림스타트사업 효과성 연구(조용남 등, 2012)의 대상자 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참여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기개입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중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동일연령의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

는 131개 시군구의 드림스타트에서 지속적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2012년 신규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50개 시군구의 드림스타트에서 아직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예비 참여자 중 영유아와 그 부모로 대상을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시군구의 드림스타트 실무자가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의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한 영아와 유아용 설문지와 부모용 설문지는 그 부모의 동의 하에 부모가 직접 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 중 응답이 완료된 영유아는 연령별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 1,904명과 그 부모였다. 영유아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0세~만 2세 영아는 800명이고 만 3세~만 5세까지의 유아는 1,104명 이었다.

<표 1> 연구대상 영유아 및 응답 부모 현황

구분	기준	영아(N=800)		유아(N=1,104)	
		N	%	N	%
유형	기존	616	77.0	885	80.1
	신규	184	23.0	219	19.9
성별	남자	427	53.8	540	49.1
	여자	366	46.2	560	50.9
가구유형	부모자녀가구	463	59.9	566	53.3
	한부모자녀가구	166	21.5	276	26.0
	조부모부모자녀가구	111	14.4	125	11.8
	조부모한부모자녀가구	14	1.8	56	5.3
	조부모손자가구	3	.4	14	1.3
	기타	16	2.1	24	2.3
가구 월 소득	100만원미만	328	46.5	448	46.5
	100-199만원	315	44.7	427	44.3
	200-299만원	59	8.4	71	7.4
	300-399만원	3	0.4	15	1.6
	400-499만원	0	0	1	0.1
	500만원 이상	0	0	1	0.1
응답양육자	아버지	106	13.5	147	13.6
	어머니	652	82.8	882	81.9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21	2.7	32	3.0
	기타	8	1.0	16	1.5

연구 대상 중 기존 시군구 드림스타트의 프로그램에 2년 이상 참여한 영아는 616명(77%), 유

아는 885명(80.1%)이고, 신규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아직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영아는 184명(23%), 유아는 219명(19.9%)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영아는 남아 427명(53.8%), 여아 366명(46.2%)로 남아가 더 많았고, 유아는 남아 540명(49.1%), 여아 560명(50.9%)로 여아가 더 많았다(50.9%). 가구의 유형은 영아, 유아 모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가장 많았고(59.9%, 53.3%), 다음으로 한부모 자녀가구가 많았다(21.5%, 26.0%). 조사대상 가구의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 가정이 영아 46.5%, 유아 46.5%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가정이 영아 44.7%, 유아 44.3%이었다. 그리고 200만원 이상이 되는 가정은 영아 8.8%, 유아 9.0%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대상, 기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구 월 소득이 대부분 낮아 경제적으로 저소득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질문에 응답한 양육자는 영유아 모두 어머니가 82.8%, 8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버지가 13.5%, 13.6%로 응답양육자 중 부모의 응답이 각각 96.3%, 95.5%를 차지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K-ASQ(한국형 Ages & Stages Questionnaires, 부모 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였고,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Abidin, 1990)을 사용하였다.

### 1) K-ASQ(Ages & Stages Questionnaires)

K-ASQ는 Squires, Potter 그리고 Bricker(1999)가 개발한 ASQ(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를 허계형, Jane Squires, 이소영 그리고 이준석(2006)이 개발한 한국에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K-ASQ는 한국형 부모작성형 영유아 발달 선별도구로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측정하여 발달지체를 선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빈곤과 방치와 같은 환경적 상황으로 인한 발달 장애의 위험이 있는 영유아의 선별과 발달장애와 만성적 질환의 예방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었다. 질문지는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가 아동을 관찰하고 그 능력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게 되며 내용은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기술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6개 문항으로 총 30개의 질문이 있다. 질문지는 영유아의 월령 및 연령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영아용은 4개월부터 36개월까지 15단계이고 36개월 이후부터 60개월까지는 유아용을 선택한다. 질문지의 응답시간은 10분~20분이며 답변은 ‘아니오’는 0점, ‘가끔’은 5점, ‘예’는 10점으로 응답하며 총점은 0점~60점까지이다.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대근육 운동 영역 .81, 소근육 운동 영역 .81, 문제해결 영역 .78, 의사소통 영역 .83, 개인-사회 영역 .78이었다.

### 2) PSI-SF(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측정은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Abidin, 1990)을 사



용하였다. 이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은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Child)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나타나는 부모 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된 요인을 가지고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자 개발된 부모 보고용 질문지이다. 질문은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평정척도로 점수 체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 ‘매우 그렇다’ 까지 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36점에서 1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척도 전체 .93, 부모의 고통요인 .90,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87,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89이었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2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 연구(조용남 등, 2012)를 위한 연구절차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연구 데이터 일부를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구 드림스타트 165개 지역에 영아(0세~36개월 미만) 5명, 유아(36개월~취학 전) 15명씩을 조사하였고 2012년에 신규로 개소한 30개 지역 드림스타트에서 영아 3명, 유아 12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드림스타트 기관 실무자들이 대상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에 양육자인 부모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K-ASQ 질문지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회수하였다. 가정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정은 부모가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방문하였을 때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특히 기존 지역 드림스타트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신규로 개소한 드림스타트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는 선정되었으나 아직 서비스 진행이 되지 않은 영유아와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최종 응답에서 K-ASQ 질문지와 양육스트레스 검사에 모두 체크한 경우만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영아와 부모는 기존 지역 드림스타트 대상자는 616명, 신규 지역 드림스타트 대상자는 184명이고, 유아와 부모는 기존 지역 드림스타트 대상자는 885명, 신규 지역 드림스타트 대상자는 219명으로 분석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참여유무에 따른 영유아와 양육자의 발달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른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발달 차이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영유아 발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영유아 각각의 발달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영아 발달의 경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와 참여하지 않은 영아에 따라 발달에 차이가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는 대근육 운동( $t=2.46, p<.05$ ), 소근육 운동( $t=3.16, p<.01$ ), 문제해결 능력( $t=3.07, p<.01$ ), 의사소통( $t=3.13, p<.01$ ) 및 개인-사회성 기술( $t=2.86, p<.01$ )의 모든 발달영역에서 참여하지 않은 영아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조기개입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는 참여하지 않은 영아에 비해 대근육 운동 발달, 소근육 운동 발달,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개인사회성 발달 등 모든 영역에서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른 영아 발달 차이 분석 (N=800)

구분	참여	N	M	SD	t
대근육 운동	유	607	53.48	12.15	2.46*
	무	181	50.94	12.36	
소근육 운동	유	605	48.04	13.82	3.16**
	무	184	43.89	16.14	
문제해결	유	602	49.25	13.56	3.07**
	무	180	45.36	15.29	
의사소통	유	597	46.52	14.96	3.13**
	무	181	41.96	17.74	
개인사회성	유	605	46.86	14.00	2.86**
	무	181	43.20	15.39	

\*  $p<.05$ , \*\*  $p<.01$

유아의 경우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와 참여하지 않은 유아에 따라 발달에 차이가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가 참여하지 않은 유아보다 대근육 운동 발달, 소근육 운동 발달,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개인사회성 발달 영역별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그 값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

서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의 효과는 유아보다는 영아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른 유아의 발달 차이 분석 (N=1,104)

구분	참여	N	M	SD	t
대근육 운동	유	882	55.12	9.88	.46
	무	219	54.79	8.15	
소근육 운동	유	874	51.74	12.09	1.71
	무	214	50.16	12.02	
문제해결	유	880	52.53	11.07	1.80
	무	216	51.00	11.67	
의사소통	유	861	53.32	11.39	1.27
	무	215	52.23	10.85	
개인사회성	유	680	52.65	9.83	1.28
	무	213	51.50	11.92	

## 2.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저소득 가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받은 영유아 부모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영유아 부모집단으로 구분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하였다. 우선 영아 부모의 드림스타트 참여 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와 참여하지 않은 부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났다. 〈표 4〉에서와 같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참여하지 않은 영아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1.17, p>.05$ ).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비교한 결과 부모의 고통요인이나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와 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에서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의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영아의 부모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낮게 나타났다( $t=-2.47, p<.05$ ). 결과적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영아의 부모보다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른 영아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분석 (N=800)

구분	집단	N	M	SD	t
양육스트레스	유	563	2.53	.54	-1.17
	무	169	2.59	.56	
부모의 고통	유	573	2.98	.67	-1.31
	무	173	3.05	.66	
역기능적 상호작용	유	610	1.83	.62	-2.47*
	무	181	1.97	.67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유	609	2.39	.68	.38
	무	182	2.37	.69	

\*  $p < .05$

다음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유무에 따른 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와 참여하지 않은 부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에서와 같이 드림스타트 참여 유무에 따른 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27, p < .01$ ). 결과적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의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유아의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더 낮았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부모의 고통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의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유아의 부모보다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의 고통정도가 더 낮았다( $t=3.52, p < .001$ ).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요인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와 참여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의 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유아의 부모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고통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자녀양육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른 유아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분석 (N=1,104)

구분	집단	N	M	SD	t
양육스트레스	유	820	2.44	.562	-3.27**
	무	199	2.59	.617	
부모의 고통	유	834	2.83	.695	-3.52***
	무	205	3.03	.764	
역기능적 상호작용	유	876	1.81	.645	-1.89
	무	216	1.91	.613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유	873	2.35	.697	-1.58
	무	214	2.43	.735	

\*\*  $p < .01$ ,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차이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생애주기 중 가정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어린 영유아의 발달에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감소하였는지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라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참여 유무에 따라 측정하고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가정에 제공되는 공적인 조기개입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과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에 차이가 있었다. 조기개입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유아가 참여하지 않은 영유아보다 발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유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영아의 경우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발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가 참여하지 않은 영아보다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의사소통, 개인-사회성의 모든 발달에서 더 높았다.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본 연구결과는 이세희(2006)의 연구에서처럼 법정 저소득 가정의 경우도 놀이감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거나 여러 신체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우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드림스타트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는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발달과 관련한 영역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참여하지 않은 영유아에 비해 모든 발달영역에서 고른 수준의 발달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유아보다 영아에게 더 의미 있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김미숙 등(2007)의 연구에서와 같이 영아 시기가 신체, 정서, 인지 등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므로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통한 영아의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박탈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가정 보다 빈곤 가정의 영유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일부 영역이긴 하나 0~2세 영아보다 3~5세 유아의 사회성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김광혁(2014)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빈곤이 주는 부정적 영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어린 영아에게 더 크게 작용하며 같은 맥락에서 조기개입의 효과도 영아시기가 더 효과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린 영유아는 다른 발달 단계보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김미숙, 조애저, 배화옥, 김효진, 홍미, 2007; Bradley & Corwyn, 2002). 또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도 다른 발달단계 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인지 및 사회, 정서적 발달도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한 개입 및 투자도 어린 영아기 시기부터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조기개입의 효과 및 효율은 더 높아진다(김효진, 2008; Heckman & Lochner, 2000). 이런 의미에서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확대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도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인적 자원 투자효과는 연령이 어릴수록 투자 대비 효과가 높았다(OECD, 2006).

둘째, 저소득 가정의 부모는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었다. 조기개입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영유아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영아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더 낮게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유아의 부모 역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유아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더 낮았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하위 요인별로 의미를 살펴보면, 특히 영아부모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긍정적이었으며, 유아부모는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양육에 대한 고통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 가정 영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참여 이후 더 낮아졌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는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의 경우에서도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지게 되어 분노나 우울감등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Webster-Stratton, Reid & Hammond, 2001). 또한 저소득 가정 부모에게 자녀양육 기술 및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지도하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김명순, 이은혜, 이정림, 전해정, 2007)와도 같은 결과이다.

이렇듯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참여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부모교육, 양육지원,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서는 자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를 위해 돌봄 기관을 연계해주어 자녀의 돌봄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관계 상담 및 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 자조모임, 부모취업 지원, 지활 상담, 가계경제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 이외에도 각 가정의 영유아와 부모 등 가족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해당 영역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선택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는 가족지지 및 교육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어 자녀양육으로 인한 불안과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드림스타트와 같은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이다.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유아는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 등 신체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등 언어발달, 문제해결 능력인 인지발달과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개인-사회성 등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비록 영아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영유아기 시기부터 조기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아동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과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자인 부모들은 부모교육 등 부모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고 그에 따라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본 연구결과 저소득 가정의 부모 및 양육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경제적인 빈곤은 아동의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어 다시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빈곤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경로를 김효진(2008)은 가정환경과 부모의 심리변인이 중요한 매개요인이라고 하였다. 양육환경과 주양육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양육환경과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조기개입은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뿐 아니라 그 부모 역시 함께 개입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렇듯 건강한 아동의 발달과 바람직한 양육환경 마련 및 부모의 적절한 양육태도 형성 등 저소득 가정을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와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 영유아 및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대상자를 찾고 지원하는 노력이 이웃과 사회의 관심 속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마련과 서비스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수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측정이 부모의 질문지 작성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발달정도를 측정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영유아와 부모의 변화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중 어떤 지원에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효과가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프로그램의 실시기간, 실시 방법, 실시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기개입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영유아 성장에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권은선, 구인회 (2010).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2(4), 129-148.
- 김광혁 (2006). 빈곤이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8(4), 265-289.
- 김광혁 (2014). 가족의 경제적 박탈이 초기 아동기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42, 7-43.
- 김금주 (2000).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숙, 배화옥 (2007). 한국 아동 빈곤을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27(1), 3-26.
- 김미숙, 조애저, 배화옥, 김효진, 홍미 (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경, 도금혜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이 가족지원 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3, 77-102.
- 김효진 (2008).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 분석. **보건복지포럼**, 128, 5-20.
- 도현심, 이선희, 오유리, 김경미, 최규리, 강나현 (2009).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도 및 지식정도: 그 실태와 양육 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30(3), 127-143.
-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 303-330.
- 보건복지부 (2013). **2013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신숙재, 정문자 (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미선, 김양은 (2012).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229-247.
- 오경자, 문경주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 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 임상**, 25(1), 59-76.
- 윤현선 (2006).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사회적 자본이론과 가족 매개모델의 비교검증. **청소년학연구**, 13(3), 107-135.
- 이세희 (2006). 저소득층 가정환경과 영아의 언어발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훈, 이종인 (2008). 영아기(0-38개월)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수용-거부 및 통제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7, 87-119.
- 이영환, 오미연 (2006).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9(3), 47-62.
- 이유진 (2006). 영아의 초기 의사소통 능력과 어휘발달 간 관계 및 초기 의사소통 능력이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1), 151-173.
- 이은혜, 이정림, 김명순, 전해정 (2010). 저소득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관한 중단적 연



구. **아동학회지**, 31(1), 65-82.

임세희 (2007).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1, 55-78.

임용순 (2002). 한국 영아의 어휘발달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혜림 (2012). 빈곤가정 한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영유아의 언어·사회성발달 간 관계: 한부모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3), 67-97.

조용남, 김정화, 정선영, 송미령, 조유리 (2012). **2012 드림스타트 효과성보고서**.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최형성 (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허계형, Jane Squires, 이소영, 이준석 (2006). **K-ASQ 부모 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홍순혜, 이숙영(2009).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빈곤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8, 137-169.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 Short Form*. Lutz,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Bradley, R., & Corwyn, R.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71-399.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6), 1507-1518.

Eamon, M. K. (2001).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An ecological systems approach. *Social Work*, 46(3), 256-266.

Esping-Andersen, Gosta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ass, S., Dinan, K. A., & Aratani, Y. (2009). *Child pover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New York: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Columbia Universi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Felner, R. D., Brand, S., Dubois, D. L., Adan, A. M., Mulhall, P. F., & Evans, E. G. (1995). Socioeconomic disadvantage, proximal environmental experiences, and socioemotion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Investigation of a mediated effects model, *Child Development*, 66(3), 774-792.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3), 207-216.

Gross, D., & Tucker, S. (1994). Parenting confidence during toddlerhood: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Nurse Practitioner*, 19(25), 29-34.

Heaton, T. M., Forste, R. Hoffmann, J. P., & Flake, D. (2005). Cross national variation in family influence on child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0(1), 97-108.

Hill, M. S., & Sandfort, J. R. (1995).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on productivity later in life:

-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2), 91-126.
- Korenman, S., & Miller, J. E. (1997). Effects of longterm poverty on the physical health of children in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See Duncan & Brooks-Gunn*, 70-99.
- Korenman, S., Miller, J. E., & Sjaastad, J. E. (1995).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Resul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2), 127-56.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2), 311-346.
- NESS (2011). *National evaluation of Sure Start local programmes: An economic perspective*. Research report DFE-RR073, London: DfE.
- OECD (2006). *Start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France: OECD.
- Parker, F. L., Piotrikowski, C., & Peay, L. (1987). Head Start as a social support for mothers: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involvement. *American Orthopsychiatric Association*, 220-233.
- Puma, M., Bell, S., Cook, R., & Heid, C. (2010). *Head Start Impact Study: Final Report*. Office of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ashington, D.C.
- Reitz, E., Deković, M., Meijer, A. M., & Engels, R. C. M. E. (2006).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parenting and best friends' effects on problem behavior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6(3), 272-295.
- Schweinart, L. J., Montie, J., Xiang, Z., Barnett, W. S., Belfied, C. R., & Nora, M. (2005). *Lifetime effects: The High/Scope Preschool study through age 40*. Ypsilanti, MI: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 Snow, C. E., Burns, M. S., & Griffin, P. (1998). *Preventing reading difficulties in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Squires, J., Potter, L., & Bricker, D. (1999). *The ASQ User's Guide*(2nd ed).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Webster-Stratton, C., Reid, M. J., & Hammond, M. (2001). Preventing conduct problems, promoting social competence: A parent and teacher training partnership in Head Sta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3), 283-30.
- Yeung, W. J., Linver, M. R., & Brook-Gunn, J. (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3(6), 1861-1879.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arly intervention programs for child development and parenting stress from low-income famil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0-5 years old children 1,904(Participation 1,501 nonparticipating 403) and 1,904 parents from low-income families. The child and the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program, 1,501 people respectively, did not participate in the intervention program for children and parents of 403 people each .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child development between the early child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program and those who did not. Especially, the infant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program had a more higher level in muscle exercise, small muscle exercises,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nd social development than infants who have not participated. Second, parents of low-income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program had lower parenting stress than the parents who didn't participate. As a result, early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targeted at children and parents from low-income families.

▶ *Key Words* : *Early Intervention Program, Child Development, Parenting Stress, Dream Start*

논문투고	2014. 08. 15.
수정원고접수	2014. 11. 29.
최종게재결정	2014. 12. 14.